

#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 연구

이경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이본의 서지 현황 및 특징
- III. 이본의 내용 대비 고찰
- IV. 맺음말

## 【       】

본고는 <적성의전>의 필사본이 다양하게 현존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필사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는 15종의 필사본과 방각본 2 종 대상으로 이본들 간의 서사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4개의 이본군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이본 군에서 대표 이본을 선정하였다.

<적성의전>의 단락 중 도입부, 왕비득병, 채란공주와의 결연,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 등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 양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필사본의 제 1 이본군과 제 2 이본군 간에 소설 후반부에서 약간의 변개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채란공주와의 결연” 화소와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의 군담 화소가 라손d(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본에서 충실하게 서술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15종의 필사본 이본을 4개의 이본군으로 나누고 대략적인 이본군의 특성만을 밝혀보았다. 앞으로 각각의 개별 이본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사본과 경판본의 선후관계, 필사본과 완판본의 선후 관계를 밝혀 <적성의전>의 가장 선본(先本)을 찾아내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적성의전>, 필사본, 이본군, 소단락, 소설 향유층, 군담화소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적성의전>은 작자와 창작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현재 필사본 53종, 방각본, 구활자본<sup>1)</sup> 등으로 여타의 고전소설에 비해 필사본이 다양하고 출판 횟수가 많다. 이런 점은 <적성의전>이 당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소설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논문은 필사본 <적성의전>이 다수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필사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필사본 고전소설은 제목은 같지만 서술자, 즉 필사자에 따라 내용과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필사자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따라 변모 서술되면서 첨삭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sup>2)</sup> 필사본은 당대 사람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다양한 필사본을 최대한 수집하여 그 서술 양상과 이본에 따른 특징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고전소설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 필사본 이본 연구는 개별 작품의 연원을 추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적성의전>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근원설화 연구에 한용운(1937)<sup>3)</sup>, 김태준<sup>4)</sup>은 불교 설화의 수용에 초점을 두고 근원을 밝힌다. 인권환은 서사의 구조적 특성을 <선우태자> → <적성의전> → <육미당기> → <보타기문> → <김태자전>의 순서로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sup>5)</sup> 또한 이강옥은 『석

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2006.

2) 김광순,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국학연구론총』 제 11집, 2013, pp.9-50.

3) 한용운, 『<역경의 급무(譯經의 急務)>』, 『불교유신』 제4집(한용운 전집 2), 1937.

4) 김태준 저·정혜염 편역, 『김태준 문학사론선집 - 증보 조선소설사 외 16편』, 현대실학사, 1997, p.106.

가여래십지행록(기)』의 부록으로 실린 <선우태자>에서 <적성의전>, <육미당기>, <김태자전> 등의 소설로 발전한 것으로<sup>6)</sup>, 최호석은 <선우태자>에서 출발하여 <적성의전>, <육미당기>에 걸친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였다.<sup>7)</sup> 남상면은 전기적 구조에서 영웅소설의 형태로 발전해 가는 중간적인 작품으로<sup>8)</sup> 최정락은 세 가지 삽화로 이루어졌음을 말하였고,<sup>9)</sup> 김현양은 《현우경(賢愚經)》에 나타난 불교설화인 <선사태자입해품>과의 서사구도를 비교하였다.<sup>10)</sup>

위의 연구들은 <적성의전>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불전설화에서 찾아 소설로 발전된 경로를 밝힌 점이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신동익은 <적성의전>을 인도의 불전설화가 무가 바리공주의 효관(孝觀)이 함께 나타나는 작품으로<sup>11)</sup>, 양한석은 구조적 틀을 탐색담으로 보았고<sup>12)</sup> 조춘호는 효성과 선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sup>13)</sup> 하선경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근대 지향적인 의식으로,<sup>14)</sup> 김효실은 형제갈등은 사회적

- 5)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설화연구 - 인도설화의 한국적 전개」, 『인문논집』 제8집, 고려대, 1967.
- 6) 이강옥,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4집, 고전문학연구회, 1988.
- 7) 최호석,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소설사적 전개 : <선우태자>, <적성의전>,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 8) 남상면, 「<적성의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5.
- 9) 최정락, 「적성의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10)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제2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 11) 신동익, 「<적성의전>에 관한 한 考察 - 적성의의 채란공주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75호, 국어국문학회, 1977.
- 12)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주지」,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 13)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경북대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3. \_\_\_\_\_, 「우애소설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 14) 하선경, 「<積成義傳>의 인물형상과 근대지향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요인이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으며,<sup>15)</sup> 본인도 줄고에서 <적성의전>의 형제갈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sup>16)</sup>

이외에 박성호의 <적성의전>에 나타난 청각 소재의 역할과 의미를<sup>17)</sup> 연안나는 효를 극대화시켜 왕위를 이어받는 타당성을 확보한다고,<sup>18)</sup> 문영진은 <적성의전>에 나타난 개인의 승계 욕망을 환상성을 바탕으로 한 유희모티프<sup>19)</sup>를 제시한다.

한편 <적성의전>의 이본 연구는 방각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조춘호는 <경판 23장본>과 <완판 74장본>을 비교하였고, <완판 74장본>에는 채란공주의 활약담을 통해 여성의 현실 참여 의지로 보았다.<sup>20)</sup> 유광수는 <적성의전> 이본 중 유일본인 경판 <31장본><sup>21)</sup>, <30장본>,<sup>22)</sup> 안성판<19장본>을 입수하여 경판 <23장본>과 대조 확인하여 <31장본>이 경판본 중에 가장 앞선 것으로 결론짓고 <30장본>은 <31장본>의 형태적 정체성을 띤 이본으로 호응도가 좋지 않았던 이본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23장본>은 <31장본>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안성판 <19장본>은 경판 <23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새롭게 판하본을 필사해서 만든

---

1998.

- 15) 김효실,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갈등 연구 -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 16) 이경희, 「<적성의전>에 나타난 형제갈등의 심층적 의미」,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3.
- 17) 박성호, 「<적성의전>에 나타난 청각적인 소재의 역할과 의미 - 『현우경』 『선사태자 입해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방학』 제23집, 2012.
- 18) 연안나,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2.
- 19) 문영진, 「<적성의전>에 나타난 유희 모티프」, 『국어문학』 제58집, 2015.
- 20)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경북대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3.
- 21) <31장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동방학 연구소 소장, 마이크로필름으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 22) <30장본>, 프랑스 파리 기메(Guie)박물관 소장본).

이본으로 보았다. 이 논문은 새로운 이본의 발굴하여 그 상황과 위상을 조망하였다. 이어서 연세대 소장 <적성의전> 한글 <필사본47장본>과 <경판31장본>을 비교하여 필사본의 모본이 <경판31장본>임을 확인하고, <필사본47장본>의 필사 시기가 1861년임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적성의전>이 판각되어 유통되었음을 밝혔다.<sup>23)</sup> 이를 통해 필사본과 초기 경판본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본의 내용이 단순 삭제나 생략이 아닌 의도적인 축약, 개각을 시도한 결과임을 밝혔다.

위의 연구는 <적성의전>의 초기 모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판31장본>의 판각된 시기를 추적하여 그 위상을 조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으로 <적성의전>의 선행 연구들이 근원설화와 서사 구조적 특성, 서사 내용, 이본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작품의 내적, 외적 특징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하여 개별 연구마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필사본 <적성의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필사본 이본은 같은 내용의 이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각 개별 이본은 단 하나의 이본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사본은 고전 소설 창작 초기의 “기본적 원형과 보편적 전형을 보존하여 왔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형성적 원형을 추구하고 문학적 전형을”<sup>24)</sup>을

22) 유광수, 「경판본 <적성의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 제18집, 2003.

\_\_\_\_\_, 「연세대 소장 <적성의전> 필사본과 초기 경판본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제28집, 2008.

\_\_\_\_\_,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연원과 제작방식에 대하여 - 함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9집, 2010.

\_\_\_\_\_, 「구활자본 <적성의전>의 두 연원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32집, 2010.

24) 사재동, 「사재동 소장 필사본 한국고전소설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국학연구론총』

고스란히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본이다. 이런 이유로 필사본에는 방각본이나 활자본에 비해 진솔한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들 간의 서사 내용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이본 서로간의 선후관계와 역학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작품 창작 시기를 알 수 없고 작자 미상인 고전소설의 “안타까운 자료적 흠결”<sup>25)</sup>을 보완하고, 고전 문학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만드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적성의전> 필사본 이본 15종을 중심으로 경판 1종과 완판 1종, 등 전체 17종을 대상으로 이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이본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서 필사본 이본들이 가지는 서사의 공통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방각본과 필사본 이본 간에 나타나는 내용의 변개는 어떤 의미인지도 유추해 볼 것이다.

## Ⅱ. 이본 서지 현황 및 특징

### 1. 국문필사본

#### 1) 영남대본(a)<sup>26)</sup>

영남대학교 소장 국문필사본, 1책이다. 전체 35장. 본문 끝에 ‘丁未 正月二十四日’ 필사 시기가 있어, 필사 시기를 1847년 또는 1907년으로 추정

제14집, 2014, pp.226-263.

25) 사재동, 위의 논문 참고, p.7.

26) 본 논의에서 이본 고찰의 편의성을 위하여 소장처 또는 소장자가 동일할 경우에 그 순번을 알파벳 소문자를 ( ) 안에 표기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할 수 있으며, 완본이다.

## 2) 라손본(a)

김동욱 소장 국문필사본, 1책이다. 전체 44장인데, ‘癸丑 正月初 - 施之十一 - 終, 大正 二季也’라는 필사기로 보아 1913년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완본이다.

## 3) 라손본(b)

『라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5』<sup>27)</sup>에 수록된 국문필사본, 1책이다. 전체 57장이며, 표지에 ‘계유년은 1873년 또는 1933년’이고 본문 끝에 ‘계사년은 1833년 또는 1893년’으로 필사 시기가 있으며, 완본이다.

## 4) 라손본(c)

『라손본 필총서 54권』에 수록된 국문필사본, 1책이다. 전체 60장이며, 본문 끝에 “정사 윤이월 이십일 시초호여 삼월 초구일 필세호엿노라”라는 필사기가 있어, **1857년 또는 1917년**을 필사 시기로 추정하며, 완본이다.

## 5) 라손본(d)

『라손본 필총서 제54권』에 영인본으로 수록된 국문필사본으로 1책이다. 전체 25장이며 본문 끝에 “庚戌年 六月 十六日 終”라는 필사기가 있어 **1850년 또는 1910년**을 필사시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완본이다.

---

27) 『라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4』, 保景文化社, 1993의 자료를 편의에 따라 『라손본 필총서』로 표기함을 밝힌다.

6) 단국대본(a)

단국대학교 소장 국문필사본, 1책이다. 전체 47장이며 필사 시기는 없고, 완본이다.

7) 단국대본(b)

1책이며, 전체 77장인데 본문은 73장으로 부분 낙장과 파손이 있다. 본문 끝에 '경술연 정월 이파일 빅다' 의 필사기가 있어 1850년 또는 1910년으로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도입부와 왕비득병 부분이 낙장이나 후반부는 완결되어 있다.

8) 단국대본(c)

1책이며, 전체 68장이고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완본이다.

9) 김광순본(a)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28』에 수록된 국문 필사본, 1책이다. 전체 67장이며, 1847년 또는 1907년을 필사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완본이다.

10) 박순호본(a)

박순호 소장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87권』<sup>28)</sup>에 수록된, 전체 85장이다.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완본이다.

---

28) 이하 『이본류 박순호 한필고총서』로 한다.



11) 박순호본(b)

『이분류 필총 제 87권』에 수록된 국문필사본, 전체 60장이다.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완본이다.

12) 박순호본(c)

『한필고총서 제 43권』에 수록된 한글필사본, 전체 68장이다.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완본이다.

13) 박순호본(d)

『한필고총서 제44권』에 수록된 한글필사본, 전체 57장이다. 본문 끝에 ‘무진 정월 순구일’이라는 필사기가 있어 1868년 또는 1928년을 필사시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완본이다.

14) 박순호본(e)

『이분류 한필고총서 제86권』에 수록된 한글필사본, 전체 51장이다.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완본이다.

15) 박순호본(f)

『이분류 한필고총서 86권』에 수록된 한글필사본, 전체 49장이다.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며 후반부 ‘보은담’이 낙장이다.

## 2. 방각본

1) 국문경판본 23장

영남대 소장 (도남문고), 1책이다. 발행처는 서울, 한남서림, 발행일은

1920년이다.

## 2) 국문완판본 74장

영남대 소장 (도남문고) 상 38장, 하 36장 합본 1책이다. 발행처는 전주, 다가서포(多佳書鋪)이며 발행연도는 1916년이다.

이상으로 <적성의전>의 이본 중 필사본 15종, 경판본, 1종, 완판본 1종 등 모두 17종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입수된 필사본 <적성의전> 이본 19종 중 본 고찰에 언급되지 않은 이본 4종<sup>29)</sup>은 본 연구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후 본격적인 이본 고찰 대상으로 필사본 15종과 경판본 1종, 완판본 1종 등 총 17종의 이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 Ⅲ. 이본의 내용 대비 고찰

#### 1. <적성의전>의 서사와 단락 구분

본 필사본 이본 고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볼 점은 이본 상호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 그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적성의전>의 내용을 모두 7개의 대단락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이본 고찰에서 살펴볼 주요 단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이에 속하는 이본으로 ①영남대본(b) 67장 ②단국대본(d) 19장 ③단국대본(e) 57장 ④김광순(b) 26장 등이 있다. 모두 낙장본이다.

- A 도입부: 성의와 항의의 성품이 드러나고, 갈등 원인이 드러난다.
- B 왕비 득병: 왕비가 병을 얻었는데, 도사가 나타나 서역 일영주로만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 C 성의의 일영주 구득담: 성의가 서역 청용산으로 떠나 약을 구해 온다.
- D 성의의 시련과 재탄생: 성의는 구해온 일영주를 항의에게 준 후 두 눈을 찢려 버려진다.<sup>30)</sup>
- E 채란과 결연: 중국 궁궐에서 동산약부로 지내던 성의가 공주 채란과 만나 서로 음률로 화답한다.
- F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 성의 안평국으로 공주와 함께 귀국한다.
- G 성의의 보은담: 성의와 공주 본국에서 귀자 탄생 후 왕손으로 세자를 책봉하고 중국에 다녀온 후,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상으로 <적성의전> 서사 내용의 주요 단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본 간에 드러나는 서사 내용의 변개를 좀 더 면밀하게 대비하여 살펴보기 위해 <적성의전> 17종 이본의 서사 단락 대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적성의전> 서사 단락 대비표

대 단락	이본 소단락	경판	완판	영남대	라손본 a	라손본 b	라손본 c	라손본 d	단국대 a	단국대 b	단국대 c	김광순본	박순호 a	박순호 b	박순호 c	박순호 d	박순호 e	박순호 f
		23장	74장	a	a	b	c	d	a	b	c		a	b	c	d	e	f
A 도입부	A <sub>1</sub> 안평국 국왕의 치적과 계보	○	○	○	○	○	○	○	○	×	○	×	×	○	○	○	○	○
	A <sub>2</sub> 장자 항의 불칙하고, 차자 성의 어질고 효자다.	○	○	○	○	○	○	○	○	×	○	○	○	○	○	○	○	○
	A <sub>3</sub> 국왕이 차지를 세자로 책봉하려다가 신하들의 반대로 장자를 세자로 봉함.	○	○	○	○	○	○	○	○	×	○	×	×	○	○	○	○	○

30) 이강욱, 『육미당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1990, pp.824-825 참조.



	D6 중국 공주의 부마됨.	○	○	○	○	○	○	○	○	○	○	○	○	○	○	○	○	○
	D7 중국에서 성의 세자로 책봉하여 보냄.	○	×	×	×	×	×	○	×	×	×	×	×	×	×	×	×	×
E 채 란 공 주 와 결 연	E1 단저소리를 매개로 만남.	○	○	○	○	○	○	○	○	○	○	○	○	○	○	○	○	○
	E2 음율과 시서로 화답함	○	○	○	○	○	○	○	○	○	○	○	○	○	○	○	○	○
	E3 안평국 모후의 편지를 공주가 읽어주고 두 눈이 밝아짐.	○	○	○	○	○	○	○	○	○	○	○	○	○	○	○	○	○
	E4 호승상 추천으로 혼약을 정한다.	×	×	○	○	○	○	×	○	○	○	○	○	○	○	○	○	○
	E5 천자 성의로 혼약을 정함.	○	○	×	×	×	×	○	×	×	×	×	×	×	×	×	×	×
F 성 의 본 국 귀 향 대 결	F1 채란공주 기러기와 오방신장 도움으로 적부의 형제 물리침.	×	○	○	○	○	×	○	○	○	○	×	×	○	○	○	○	○
	F2 채란공주가 신검으로 적부의 형제를 물리침.	×	×	×	×	×	×	×	×	×	○	○	×	×	×	×	×	×
	F3 중국 군사가 적부의 물리침.	○	×	×	×	×	×	○	×	×	×	×	×	×	×	×	×	×
	F4 용사 태연이 항의를 제거함.	×	○	○	○	○	○	×	○	○	○	○	○	○	○	○	○	○
	F5 협객, 한 사람이 항의를 제거함.	○	×	×	×	×	×	○	×	×	×	×	×	×	×	×	×	×
	F6 세자(태연)을 예로써 안장함.	×	○	○	×	×	×	×	×	×	×	×	×	×	×	×	×	×
	F7 세자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함.	×	×	×	○	○	○	×	○	○	○	○	○	×	○	×	×	×



상기 <표 1>은 <적성의전>의 서사 내용의 대단락을 다시 소단락으로 세분하여 대비한 것이다. <표 1>을 통해 이본 간에 약간의 변별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방각본과 필사본에서는 대단락 A, B, D, E가 거의 대동소이한 서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C와 F, G에서 소단락의 서사는 약간씩 변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 볼 대단락은 C와 F이다. C와 F 부분은 <적성의전> 이본에서 그나마 변개가 드러나는 소단락이 가장 많다. 위의 <표 1>의 일곱 개의 대단락을 다시 각각 소단락으로 세분화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겠다.

## 2. 이본의 내용 대비 고찰

상기에 제시된 <표 1>의 자료를 바탕으로 17종의 <적성의전> 이본을 네 가지의 이본군(異本群)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이본 군의 분류 기준은 서사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우선 제 1 이본군은 10종의 필사본으로 A, B, C, D, E, F, G의 소단락에서 서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이본군이다. 제 2 이본군은 3종의 필사본으로 F의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에서 유사한 '신검' 화소가 삽입되어 나타나는 이본군이다. 제 3 이본군은 경판 1종과 필사본 1종으로 경판 23장본과 필사본의 서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제 4 이본군은 완판 1종과 필사본 1종으로 완판본의 서사 내용과 필사본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같은 이본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이본군 : 라손본(a), 라손본(b), 라손본(c), 단국대본(a), 단국대본(b), 단국대본(c), 박순호본(c), 박순호본(d), 박순호본(e), 박순호본(f).

제 2 이본군 : 김광순본, 박순호본(a), 박순호본(b).

제 3 이본군: 라손본(d), 경판 23장본.

제 4 이본군: 완판 74장본, 영남대본(a).

위의 이본군 분류 기준은 대상 이본들의 서사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대상 필사본 이본들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단락에서 다시 소단락으로 서사를 나누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개별 이본 간에 사건 전개 of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 개별 이본들의 단락별 전개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아 네 가지의 이본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적인 단락별 대비를 위해 네 가지 이본군에서 각각 대표 이본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대표 이본 선정 기준은 개별 이본군의 특징적인 서사 내용이 충실히 서술되어 있고, 낙장이 거의 없으며 대략적인 필사 시기라도 알 수 있는 완본을 선택하였다. 각각 선정된 대표 이본은 위의 네 가지 이본군 소개에서 가장 앞에 내세워진 이본이다. 네 가지 이본군의 각 대표 이본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이본군: 라손본(a) 44장.

제 2 이본군: 김광순본 67장.

제 3 이본군: 라손본(d) 25장 (경판 23장 계열).

제 4 이본군: 완판 74장본

각 이본 군의 단락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적성의전> 대표 이본군 서사 단락 대비표

이본군(異本群)		제1 이본군	제2 이본군	제3 이본군	제4 이본군
대단락	소단락	이본 라손본a 44장	김광순본 67장	라손본d 25장	완판 74장본
A 도입부	A <sub>1</sub> 안평국 국왕의 치적과 계보	○	×	○	○
	A <sub>2</sub> 장자 향의 불칙하고, 차자 성의 어질고 효자이다.	○	○	○	○
	A <sub>3</sub> 국왕이 차자를 세자로 책봉하려다가 신하의 반대로 장자를 세자로 봉한다.	○	×	○	○
B 왕비 특별	B <sub>1</sub> 왕비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다.	○	○	○	○
	B <sub>2</sub> 차자 성의가 하늘께 축수한다.	○	○	○	○
	B <sub>3</sub> 아란존자 후제가 나타나 일영주 있는 곳을 알려준다.	○	○	×	○
	B <sub>4</sub> 한 도사가 알려준다.	×	×	○	×
C 성의의 일영주 구득담	C <sub>1</sub> 성의 해상에서 갈 곳을 몰라 하늘께 축수한다.	○	×	×	○
	C <sub>2</sub> 표주탄 선관이 서역 백능파를 알려준다.	○	○	×	×
	C <sub>3</sub> 사공이 서역길을 조금 안다.	×	×	○	○
	C <sub>4</sub> 옥저선관 적송자가 서천 약수가를 알려준다.	○	×	×	×
	C <sub>5</sub> 고래 탄 선관 봉내방장이 어육의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라 한다.	×	○	○	○
	C <sub>6</sub> 성의가 배를 타고 서역가에 도착한다.	○	×	×	×
	C <sub>7</sub> 파초 선관이 성의만 태우고 서역가에 데려다 준 후 데려온다. (동방삭, 적송자)	×	○	○	○
	C <sub>8</sub> 금불보탑존사가 일영주를 준다.	○	○	○	○
	C <sub>9</sub> 천상 존재가 극한 혐의로 형제되었다고 알려준다.	○	○	○	○
이본군(異本群)		제1 이본군	제2 이본군	제3 이본군	제4 이본군
대단락	소단락	이본 라손본a 44장	김광순본 67장	라손본d 25장	박순호b 60장
D 성의 시련과 재탄생	D <sub>1</sub> 성의 일영주를 향의에게 건네주고 두 눈이 찢려 버려진다.	○	○	○	○
	D <sub>2</sub> 성의 눈이 밝아지고 호승상 집에서 공부한다.	○	○	○	○

	D <sub>3</sub> 성의 호승상의 양자가 된다.	○	○	×	○
	D <sub>4</sub> 중국에서 성의를 세자로 책봉하여 본국으로 보낸다.	×	×	○	×
E 채란과 결연	E <sub>1</sub> 음울과 시서로 화답한다.	○	○	○	○
	E <sub>2</sub> 호승상 추천으로 혼약을 정한다.	○	○	×	×
	E <sub>3</sub> 천자 성의로 혼약을 정한다.	×	×	○	○
F 성의를 본국 귀향 대결	F <sub>1</sub> 채란공주기러기, 오방신장 도움으로 적부의 형제 물리친다.	○	×	×축약	○
	F <sub>2</sub> 채란공주 꿈에 만난 장수의 신검으로 적부의 형제를 물리친다.	×	○	×	×
	F <sub>3</sub> 중국 군사가 적부의 물리친다.	×	×	○	×
	F <sub>4</sub> 용사 태연이 항의를 제거한다.	○	○	×	○
	F <sub>5</sub> 협객 또는 한 사람이 항의를 제거한다.	×	×	○	×
	F <sub>6</sub> 세지(또는 태연)을 예로써 안장하라 명한다.	×	×	×이하 축약됨	○
	F <sub>7</sub> 세자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 명한다.	○	○	×	×
G 성의를 보은담	G <sub>1</sub> 서역 해상에서 죽은 격군에게 제를 지낸다.	○	○	○	○
	G <sub>2</sub> 단저 만들었던 대나무를 비단으로 봉한다.	○	×	×	○
	G <sub>3</sub> 격군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고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낸다.	○	○	×	○
	G <sub>4</sub> 중국에 잠시 갔다가 천자와 호승상 부에게 효도한 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다.	○	○	×	○
	G <sub>5</sub> 용사 태연에게 제문 지어 표한다.	○	×	×	○
	G <sub>6</sub> 서역 금관보탑존사 화상을 그려 춘주로 제를 지낸다.	○	×	×	○
	G <sub>7</sub> 기러기 고향으로 보낸다.	○	○	×	○
	G <sub>8</sub> 부마 즉위하고 일남을 둔다.	○	×	×	×
	G <sub>9</sub> 부마 즉위하고 3남 2녀를 둔다.	×	×	×	○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격적인 내용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밝혀둘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성의전>의 도입부와 왕비득병, 채란공주와의 결연,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 등의 대단락을 중심으로 대표 일본의 내용을 대비

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평면적인 사건 전개 속에서도 필사자의 가치관과 언어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필사본 특유의 개성적인 부분을 발견하여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입부

소설의 도입부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독자는 도입부를 읽어봄으로써 향후 읽을 도서를 선택하는 결정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라손a’의 도입부는 매우 많은 부분을 안평국의 지형적 특징과 현재 왕의 치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자 항의는 불칙함과 동생 시기함을 짧게 서술한 반면에 차자 성의는 효행을 갖추고 품성 또한 뛰어난을 길게 서술한다. 그리고 왕의 국가 통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형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 라손본(a)<sup>31)</sup>

화설 동연 강남의 안평국이라 <……> 장자의 명은 항의이 연이 십스 세라 차즈의 일흠은 성의이 나히 십이 세라 성의는 얼굴이 관옥갓고 풍치 슈려하여 세상 사람갓지 안트라 장자 항의는 십술이 불측하고 쓰지 어지 # 못하여 미양 그 동심을 시기하여 죽이고즈호되 <……> 츠자 성의 효행이 지극하여 <……> 왕이 # 말을 드르시고 침음양구의 장즈 항의로 세즈을 칙봉하이라.<sup>32)</sup>

## 제 2 이본군, 김광순본

옛제 덕송연간의 강남의 일국이 잇시되 국호는 안평국이라 옛 적원평의

31) 이하 대표 이본군의 명칭을 제 1 이본군은 ‘라손a’, 제 2 이본군은 ‘김광순본’, 제 3 이본군은 ‘라손d(경)’, 제 4 이본군은 ‘완판본’ 등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32) 띄어쓰기 필자. 앞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인용하기로 한다.

십스대손으로 죽왕의 일으려 성덕을 치국하니 쇼시이위리 요순지건공아라 오직 슬흐의 이 즈을 두어시되, 장즈의 명은 향의니. 턴품이 불현흐고 츠즈의 명은 성이이. 천품이 천지의 성인으로 효성 출천하니. 부모 사랑하시더라.

### 제 3 이본군, 라손본(d) (경)

화설 강남의 안평국이 잇스니 <……> 국티민안하여 도불습유흐고 야불페 문이러라 <……> 장즈의 명은 향의요 츠즈의 명은 성의라. 성의 천품이 순후흐고 괴골이 준슈흐미 왕의 부뷔과의 흐고 일국이 흠양하니 향의 미양 불측흐 마음으로 성의에 인효을 시기하여 음히할 뜻줄 두더라 <……> 왕이 침음양구에 향의로 세즈을 봉하니라<sup>33)</sup>

### 제 4 이본군, 완판본

송나라 시절의 강남의 안평국리라 하는 나라 <……> 국티민안하여 산무도적흐고 도불습유하야 <……> 장자의 일흠은 향의요 차자의 일흠은 성의라 위인이 정직흐고 성품이 순후흐미 진지 관후 장지라 겸하야 효성이 지극하니 <……> 차시의 향의 본심이 불양한 중의 그 부모 성의 사랑흐물 보고 미양 시기하야 심중의 회할 쓰슬 품고 지너더라 잇디 향의난 나이 십사세요 성의난 연이 십세라 <……> 왕이 제신의 말을 드르시고 침음양구의 향의로 세자를 봉하시니라

위의 원문을 보면 ‘김광순본’은 도입부가 다른 이본에 비해 매우 간략함을 알 수 있다. 이 도입부만 본다면 독자에게 소설 전개에 대한 정보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반면에 ‘라손d(경)’과 ‘완판본’에서는 도입부에서 드러나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서술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에 필요한 주요 갈등의 원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완판본’의 도입부만 볼

33) 위의 라손본(d)(경)은 경판 23장본과 서사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각 이본군의 대표 이본으로만 고찰하기로 한다.

때는 ‘라손a’의 도입부와 매우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완판본’에는 한 자 고사성어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 2) 왕비 득병

<적성의전>에서 이 단락은 성의가 왕비 득병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을 획득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 받는 단락이다. 왕은 차자를 세자로 책봉하려다 좌절된 경험이 있지만, 차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상태이며, 왕비는 이름 모를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린 성의는 모후의 병축을 떠나지 않고 돌보지만 효험이 없는지라, 하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모비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 라손a

잇씨의 성의 병축의 떠너지 아이하고 약을 맛보아 권하는 효성이 지극하면 시〓로 황천 후도와 일월승신계 비러 왈 소즈로 더신희고 모비를 살여쥬쇼셔  
흐미 축슈험을 마지 안이하며 <……> 도인은 아란존자의 후예라 <……> 만일 효성이 부족하면 마참니 웃지 못히고 외히려 화을 당히리다

### 김광순본

세 썩을 쓸지 아니하고 쥬야 피셔 디병하디이 흐늘기 기도한디 모비의 병이 만일 천명일진디 소즈로 더신희옵고 모비를 슬니 쥬옵쇼셔 이러타시 쥬야로 읍축하이 <……> 만일 정성이 부족하면 도로혀 환을 이부리라

### 라손d(경)

향의는 돈연무려히고 성의는 쥬야로 불활의디히고 시 향하야 흐날기 축슈하야 왈 불쥬즈 성의로 더명히고 모후 병을 낮기 축수하야 밍마다 쥬원히더니 <……> 만일 효성이 부족호오면 웃지 못호오리다

### 완판본

차시의 성의 모후 침소를 떠나지 안이하고 주야로 약을 맛보와 권하며 효성으로 시위하여 하늘게 축수 왈 천지 일월성신은 감응흡흡소서 모비의 병세가 진자 천명일진디 불초자 성의로 더명흡흡시고 모후의 명을 이어 살여 주을 소셔 <……> 도사 디 왈 셔천 셔역국 청용사의 잇사오나 격성의가 안이면 엇지 못호오리다

위의 각 이본의 원문을 보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성의의 지극한 효행을 드러내고 있다. ‘라손a’, ‘김광순본’, ‘라손d(경)’, ‘완판본’ 모두에서 성의가 ‘일월성신이나 하늘’에게 자신의 소망을 담아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라손d(경)’에는 모후의 병환에 대처하는 항의의 태도가 나타난다. 항의는 ‘돈연무려’<sup>34)</sup>하여 모후의 병에 대해 곧 낫겠거니 생각하며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성의는 주야로 ‘불할의대’<sup>35)</sup>하여 밤낮으로 의관을 갖추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의 목숨을 모후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모후의 병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표현은 짧지만 모후가 병을 앓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두 아들의 태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대비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라손d(경)’의 이런 표현은 소설의 발단 단계에서부터 항의와 성의의 효행을 극과 극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성의의 효성이 항의와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것임을 드러내는 의도된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후 서사 내용은 서역으로 떠날 것을 간청하는 성의와 어린 것을 보낼 수 없다는 부왕과 모후의 대화가 주를 이루며 전개된다. 결국 성의는 부모를 비롯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지극한 효자라는 점을 희망으로 삼아 서역으

34) 돈연무려(頓然無慮): 조금도 돌이봄이 없어 염려함이 없다. <표준 국어 대사전 참고>

35) 불할의대(不惕衣帶): 옷을 갖추어 입고 으르지 않는다. 『한한대사전』, 민중서림, 2012 참고.

로 모험을 떠나게 된다.

### 3) 채란공주와 결연

<적성의전>에서 ‘성의와 채란공주의 결연’ 단락은 매우 특별하다. 채란공주는 개인의 결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인물로 묘사된다. 중국의 공주로서 어리지만 지혜롭고 성숙한 소녀와 두 눈이 안 보이는 초라한 소년의 운명적 만남은 매우 흥미로운 시작이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끌리는 것을 자제하며 음률로 화답한다. 채란공주와 성의 사이에는 남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기분 좋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애정 소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단락에서는 <적성의전>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는 ‘지극한 효자 성의’는 잠시 보류되고 있다. 다만 성의와 채란의 운명적 만남과 채란공주의 약간의 일방적인 애뜻함만이 더 깊어질 뿐이다.

채란공주는 달빛 아래에서 성의를 처음 보는 순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마음이 끌린다.

#### 라손a

성의 명을 이기지 못하여 시여을 짜라 완월누의 올나가 지비헌디 공쥬 월  
 흥의 그 소동의 괴상을 살펴보이 명월이 운무 중의 잠겨는듯 비록 밍인이나  
 옥 갖튼 골격의 식〃 흥 풍치와 표〃 흥 괴상이 범인 갖지 으이허더라

#### 김광순본

성의 감히 기치지 못하여 시여을 좇츠 명월누의 올나가 지비헌디 공쥬  
 월흥의 즈시 슬퍼보니 명월리 운무 중의 잠겨는듯 비록 양목을 감아시는 옥곳  
 단 골격의 식〃 흥 풍치 표〃 늑〃 흥야 세속 인무리 안일네라

### 라손d(경)

성의 마지 못하여 싸라와 월누의 이르어 지비 하니. 공주 즈세이 살피어 보  
니. 비록 폐망이나 표 〃 흔 끌격이 진짓 디중부 의 괴송 이라

### 완판 74장본

차시 성의 마지 못하여 시비를 쓰러 완월누의 올나 가례 한디 공주 월하 의  
안자 그 동자 의 거동 을 살피 보 니 히동 명월리 구름 속 의 잠 간 듯 한 지 라 비록  
땡인 이나 옥안 선풍 과 표 〃 한 기상 이며 활달 한 성심 이 음성 의 넛 타 나 니 범인  
과 크게 다 른 지 라

위의 원문에서 보듯이 각 이본별로 내용의 축약이나 변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서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은 거의 대부분의 이본에서 매우 충실하게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는 단락이다.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채란공주가 이성(異性)에게 보이는 호기심 어린 순진함은 소설의 새로운 재미를 만든다. 그리고 공주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담담하게 반응하는 성의의 태도는 앞을 못 보는 불행조차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면이 있다. 만약 성의의 눈이 보인다면, 채란공주와 독대하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 할 일이다. 이런 소설적 분위기로 인해 이 단락은 이본들 간에도 내용이 충실하게 서술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 단락을 통해 주목해 볼 점은 성의가 안평국 모후가 기러기 편에 보낸 편지를 채란 공주가 읽어주면서 눈을 뜨게 된 이후이다. 성의가 눈을 뜨게 되면서 채란 공주는 서로 지척에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변하고 말았음을 인식한다. 채란공주와 성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둘은 현실의 규범을 충분히 체득하고 있는지라 서로에게 애뜻한 안부로 이별 인사를 전한다.



**라손 a**

공자의 양안이 발가시이 상디히기 슈괴히기로 지척이 철이 되어시이 공즈  
는 니 // 무양호흡소서 흐엇더라

**김광순본**

공즈 의제는 두 눈이 발가시니 상디히기 수괴히지라 지척니 철이더야시니  
공즈는 바리건디 니 // 무량호소서 흐야쩌라

**라손d(경)**

그디 일성 심스를 괴이시몬 아녀즈의 티도라 그러나 이제로 부터 니외 흐  
격혀여스미 다시 모일 괴약은 고스히고 전일스를 싱각흔죽 즈괴흐미 만스오  
 나, 바라나니 구체를 안보호쇼서 흐거날

**완판본**

그디 근본을 일정 기이른 진실노 안여자의 티도라 그러나 이제로부터 니외  
현적혀엇시니 다시 뵈을 의논는 고사하고 지닌 일을 싱각호오면 참고흐미 만  
사오나 바리거디 괴체 안보호소서 흐거늘

위의 원문을 보면 필사본 ‘라손 a’와 ‘김광순본’은 내용이 간략한데 비해 ‘라손d(경)’와 ‘완판본’은 구구절절이 앞으로 못 볼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라손d(경)’와 ‘완판본’을 보면 필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 있다. ‘라손d(경)’의 ‘그디 일성 심스를 괴이시몬 아녀즈의 티도라’와 ‘완판본’의 ‘그디 근본을 일정 기이른 진실노 안여자의 티도라’ 부분이다. 채란공주는 음률로 화답하면서 성의의 근본을 알아내고자 여러 차례 간곡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공주의 서운함이 붙어나는 말이다. 이 말은 읽기에 따라서 여염집 여인이 정인에게 서운함을 말할 때, 상대에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말처럼 느껴진다. 채란 공주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

게 성의를 서운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을 만큼 동등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방각본 소설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출판된 책이다. “쉽게 말해서 책이 상품화되어 시장적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방각본(坊刻本)이 된다”.<sup>36)</sup>는 점이다. 위의 표현이 필사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방각본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필사본에 비해 방각본은 독자를 의식하고 만든 출판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당시 한글소설의 향유층이 남성보다는 여성 독자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여성 독자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적성의전>에서 ‘채란공주와 결연’ 단락에서 축약이나 변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충실히 서술되는 이유로, 성의와 채란의 운명적 만남에 대한 극적 요소가 여성 독자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란은 중국의 공주로 지혜와 지덕은 물론 아름다운 외모와 여장부의 호방함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성의는 안평국의 왕자였으나 두 눈이 멀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 채란과 성의의 만남은 소설의 극적인 요소로서 독자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 4)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

이 단락은 성의가 중국에서 한림학사에 제수되고, 부마가 되어 본국으로 금의환향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은 <적성의전>에서 군담 화소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본에 따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등 약간의 내용 변개를 보인다. 먼저 제2 이본군에서 다른 이본군과는 차별화되는 변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 이본군은 군담 화소가 거의 축약되어 있다. 나머지 제1 이본군과 제4 이본군은 거의 유사한 내용 전개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

36) 유탉일,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p.22 재인용.

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개별 원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라손 a본

장수는 적불이라 <…> 부마 십여 합이 불의 // 날인 칼을 당치 못하여 증이 위급히이 잇씨의 기러기 모리 무친 몸을 불의 낮체 썰이이 <…> 잇씨의 부마 불의 칼을 당치 못하여 정이 위급히이 <…> 공쥐 칠십여 합이 칼을 들어 친이 머리가 마하에 찌러지은지라 <…> 공쥐 정신을 가다듬어 입으로 입계정신과 갑을 병정을 부르시이. 공중의서 오방신장이 내려와 문의를 치니

이 이본군에서는 부마가 거의 싸움에서 나약하고 용맹성이 부족한 인물로 나타나는 반면에, 채란공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담력과 무예 실력을 갖춘 영웅적 기질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마는 십여 합에 기진맥진 했으나, 공주는 칠십여 합을 두 번이나 싸워도 결국 승리를 하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로 부각된다. 이런 점은 군담 화소의 축약이 심한 ‘라손d(경)’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 김광순본

장수는 적부리라 <…> 부마 왕 이제는 급하야시니 죽기로 막으리라 <…> 일척 기러기 두 너리의 모리를 못쳐드가 적부리 너세 썩리니 <…> 공주 디로 하야 즉시 갑주를 갖초오고 <…> 차일 팔십여 합이 공주의 신검이 번듯히 적부리 머리 말의서 찌러지니 <…> 공주 입으로 입계정신과 갑을병정을 부르니 팔신장이 공중으로 내려와 좃치이 <…> 향의 강가의 다달 너 성의를 보고 이를 갈며 눈을 부릅 뜨고 카을 들고 선는지라 부마 멀이 바라보니 형공의 거동 분명하나 <…> 형공의 마암을 두루혀 부모 뵈옵기를 즉간 빌이소서

이 이본군은 군담 화소에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하여 성의에게 신묘한 힘을 지닌 신검을 주는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 이후 그 신검으로 적부리

형제와 향의를 제거한다. 제2 이본군으로 분류된 3종의 이본 중 ‘김광순본’, ‘박순호a본’에만 ‘신검’ 화소가 삽입되어 있고 나머지 ‘박순호 b본’에는 ‘신검’ 화소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들 이본간의 영향관계는 좀 더 고찰해보아야 하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이 이본에서 또 새로운 내용은 채란공주가 적붙이 형제를 물리치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분을 참지 못한 향의가 성의와 담판을 짓겠다고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나 습연 직주훈 울고을 보믹 일변 반갑고 일변 두려워 흐늘을 우러러  
탄식하야 왓<...> 형공의 마암을 두루혀 부모 뵈옵기를 죽간 빌이소서

성의는 자신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죽음에 가까이까지 가게 했던 향의를 보며 분노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반가운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형공이 마음을 고쳐먹고 함께 부모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한다. 그러나 결국 향의는 신검을 받은 태연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17종의 이본들의 군담 화소에서 이러한 성의의 태도가 나타나는 내용은 이 ‘김광순본’이 유일하다. 이 이본에서 성의가 자신을 고난에 빠뜨린 친형 향의를 두려워 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하고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동안의 성의는 지극한 효성을 갖추었으나 고난을 맞았을 때,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성의는 위기가 닥쳐오면 하늘께 축수했고 그럴 때마다 하늘은 조력자를 보내 극복하게 하였다. 이번 안평국 귀향도 성의에게도 향의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위기이다. 두 명 중 한 명은 죽어야만 한다. 한 나라의 왕은 두 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의는 이 위기를 해상에서 미리 전해 들었고, 신검까지 받아 모든 준비를 마친 승리자로서 완벽한 면모를 갖춘다.

다른 이본에는 서술되고 있지 않은 위에 원문은 성의가 드러내는 승리자의 여유로 보여진다. 그리고 새롭게 삽입되는 등장인물들도 모두 성의를 위한 조력자의 역할로, 전반적인 서사 내용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성의가 좀 더 순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뿐이다.

### 라손d(경)

이는 적부리라 <…> 디국 군관 중 일인이 용뎡이 절눈흔 지 있는지라. <…> 항거하는고 하며 미져쓰와 슈합이 못하여 부피를 버히고 나문 군스를 쫓친 후의 위의를 차려 나아가니라. 츠설 향의 순스 피함을 듯고 디경하여 친이 칼을 들고 가비로 가더니. 문득 혼 스람이 디호 왈 이 무지흔 놀아, 동기를 몰나보고 이러툷 지악 불양하니. 너 가튼 놈을 버혀 후인을 중겨히리라 하고 일합의 버히고 즈문이 스흔니 웃지 쾌활치 아니리오 이 스람은 안평국 협각일너라

이 ‘라손d(경)’은 군담적 요소를 거의 축약시켰기 때문에 <적성의전> 후반부에서 느낄 수 있는 소설적 역동성이 매우 감소됨과 동시에 간략한 서술로 결말을 맺는다. 향의가 보낸 장수도 적부리 뿐이고, 그를 대적하는 상대도 대국 군관으로 수합에 제거한다. 향의를 제거하는 사람도 ‘안평국 협객’으로 나온다. 이 이본도 전반과 중반부에서는 간략하지만 ‘완판본’과 매우 유사한 전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적성의전> 서사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분량에 대한 제한을 받아 대거 축약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완판본

이 장수는 적부리라 <…> 나는 중국 황사라 <…> 십여 함에 적부리 칼을 날여 황사를 칠식 <…> 기러기 모리를 몸의 못치고 날 기의 가득 실코 <…> 공주 디 왈 부마 지식이 너 // 하오나 무례을 이키지 안이하엿사오니 엇지 능히

용검허리요 첩은 유시부텀 무기를 조와하여 말달이기와 창쓰기를 연십하였쓰  
 오니 <…> 공주 칠십여 합의 불결 승부러니 <…> 공주 칼리 번뜻하며 적불의  
 머리 마하의 찌러지난지라 <…> 문듯 공중으로서 오방신장이 니려와 좌우로  
치며 <…> 문듯 공주의 금광이 빛나며 문의 머리 금광을 좇차 찌러지느니라

이 이본은 위의 ‘리손d(경)’에 비해 군담 화소에 대한 상황 묘사가 자세하게 나타난다. 우선 살펴볼 점은 처음 적부리를 상대하는 사람으로 부마가 아니라, 중국 황사가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리손 a본’과 ‘김광순본’에는 부마가 적부리를 맞아 싸우지만, 그 기운을 당할 수 없어 공주가 대신 싸움에 나선다. 어떻게 보면 공주보다 나약한 부마로 오인할 수 있겠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완판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공주 더 왈 부마 지식이 녀〃하으나 무례을 이키지 안이하엿사오니 엇지 능히 용검허리요 첩은 유시부텀 무기를 조와하여 말달이기와 창쓰기를 연십하였쓰오니’ 채란 공주는 부마가 지식을 키우느라 무예를 익힐 수 없었음을 대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듯한 대목이다.

이 군담 화소는 <적성의전>에서 채란공주의 활약이 단연 돋보이는 단락이다. 비록 기러기와 오방신장의 도움을 받지만 채란공주는 여성 영웅적 자질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리손 a본’에서 부마는 십여 합의 기진맥진하지만, 채란공주는 적부리와 싸울 때는 70여 합을 겨루었고, 적문의와는 80여 합을 겨루어 승리하였다. 그리고 ‘김광순본’에는 부마가 잠시 싸우다가 돌아오고, 채란공주에게만 부여된 신검으로 적부리는 80여 합, 적문의는 120여 합을 겨루어 승리하는 치열한 결투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단락의 자세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는 ‘리손d(경)’를 제외하고 ‘리손 a본’, ‘김광순본’, ‘완판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채란공주가 남성적 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탁월한 무예 실력을 드러내어 승리하는 장면은 독자에

게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감정은 남성 독자보다는 여성 독자에게 더 진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고 본다. ‘리손 a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이본에서 생동감 있게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여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서사 전개는 여성 영웅 소설이 유행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진다.

<적성의전>에서 다소 독립적인 단락이 ‘채란공주와의 결연’ 과 ‘성의의 본국 귀향 대결’이다. <적성의전>에서 이 두 단락만을 따로 분리하여 본다면 주인공은 당연히 채란공주이다. 채란공주는 <적성의전>에서 지상세계 사람이지만 중국의 공주이며 지혜와 덕망, 그리고 무예까지 갖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다. 이렇게 볼 때 채란공주는 성의처럼 시련을 거쳐서 획득해야 할 그 무엇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채란공주는 여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은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이고, 남성의 대표자 격인 부마, 성의는 무예를 익힐 기회가 없어 용맹한 적과 싸울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이로써 채란공주는 당당하게 전투에 나서서 용맹한 장수 두 명을 제거하여 승리한다.

한글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 많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고소설이 읽히던 당대 여성들에게 ‘채란공주와 결연’과 ‘성의의 본국 귀향’은 <적성의전>을 탐독하게 하는 흥미 요소가 되어 많은 독자에게 애독되었으리라 추정된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적성의전>의 필사본 15종과 방각본 2종의 이본 서사 내용을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II에서는 17종의 이본에 한정하여 그 서지 사항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III에서는 각 이본의 서사 내용을 대단락으로 재

구성한 후, 소단락으로 세분하여, 개별 이본 간에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 서사 단락 대비표 [1], [2]를 제시하여 대비하였다. 이 표를 바탕으로 네 가지 이본군으로 분류하고, 각각 대표 이본을 선정하여 원문을 대조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대상이 된 15종의 필사본 중 제 1 이본군은 다른 이본에 비해 <적성의전>의 중심 서사 내용 충실하게 서술되고 있다. 제 2 이본군은 후반부의 '성의를 본국 귀향 대결'에서 성의에게 신검을 주는 삽화가 나타나면서 약간의 변개를 보인다. 그러나 이 신검 삽화는 <적성의전>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성의의 효성을 강조하는 삽화로만 보았다. 제 3 이본군은 '경판 23장본' 계열인 '라손d 25장본'으로, '경판 23장본'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했다. '라손d'를 모본으로 '경판 23장본'이 필사된 것은 아닌지 차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제 4 이본군은 완판본 계열인 '영남대a본'이다. 그러나 '영남대a본'을 제 4 이본군으로 선택하기에 서사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완판 74장본'을 대표 이본으로 선정하여 여타의 이본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완판본과 필사본 간에 드러나는 서사의 유사점만을 찾아내는 것에 그쳤다.

앞으로 필사본과 완판본의 특징적인 서사 내용을 비교, 대조를 통해 보다 밀도 있게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적성의전>의 선본(善本)을 넘어 선본(先本)을 찾아내는 작업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방각본

<적성의전 권지단>, 국문경판본 23장, 영남대 소장, 도남문고.

<덕성의전 상>, 국문완판본 74장, 영남대 소장, 도남문고.

### 2. 국문필사본

<적성의전 권지단>,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28』 수록.

<積成義 卷之一>, 김동욱 소장,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적성의전권지단>, 김동욱 소장, 『라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5』 수록.

<적성의전>, 김동욱 소장, 『라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4』 수록.

<적성의전단>, 김동욱 소장, 『라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4』 수록.

<積成義傳>,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赤聖儀傳 劄>,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적성전권이라>,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덕성의전 권지단>,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7권』 수록.

<적성의전 단권이라>,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7권』 수록.

<적성전권지단이라>,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3』 수록.

<정성의전이라>,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4』 수록.

<적성의전>,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6』 수록.

<적성의전권지단>,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86』 수록.

<적성전 권지단>, 영남대학교 소장.

### 3. 저서

김태준 저·정혜염 편역, 『김태준 문학사론선집 - 증보 조선소설사 외 16편』, 현대실학사, 1997.

유태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8.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2006.

최정락, 『적성의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4. 논문

- 김광순,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국학연구론총』 제11집, 2013, pp.29-70.
-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제2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pp.157-183.
- 남상면, 「<적성의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5.
- 박병동,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이본 검토」, 『고소설연구』 제1집, 1995, pp.151-175.
- 박성호, 「<적성의전>에 나타난 청각적인 소재의 역할과 의미 - 『현우경』 「선사태자 입해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방학』 제23집, 2012, pp.125-152.
- 사재동, 「사재동 소장 필사본 한국고전소설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국학연구론총』 제14집, 2014, pp.226-263.
- 신동익, 「<적성의전>에 관한 한 考察 - 적성의와 채란공주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75호, 국어국문학회, 1977, pp.1-19.
-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주지」,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 유광수, 「경판본 <적성의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pp.349-381.
- \_\_\_\_\_, 「연세대 소장 <적성의전> 필사본과 초기 경판본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제2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pp.383-410.
- 이강욱, 「육미당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1990.
- \_\_\_\_\_, 「불경계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4집, 고전문학연구회, 1988, pp.137-171.
- 이경희, 「<적성의전>에 나타난 형제갈등의 심층적 의미」,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설화연구 - 인도설화의 한국적 전개」, 『인문논집』 제8집, 고려대, 1967, pp.279-326.
-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경북대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3, pp.1-25.
- \_\_\_\_\_, 「우애소설의 구조와 의미」,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 한용운, 「<역경의 급무(譯經의 急務)>」, 『불교』 제3집, 1937, pp.2-8.

**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Manuscript Versions of *Jeokseonguijeon*

Lee, Gyeong-hee

This study set out to compare and analyze 15 manuscript versions and two commercial versions of *Jeokseonguijeon*, a Hangeul novel whose writer is not known, in the bibliographic situation and narrative content of each version. The present study was conceived by the recognition that there had been no full-blown research on the novel even though it had as many as 53 remaining manuscript versions. The selected versions were closely compared by the small paragraphs to extract and compare the content that was depicted similarly and differently by the paragraphs and figure out thei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Future study need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of its different versions meticulously and closely, thus identifying its best version by examining the sequence between its manuscript and Gyeongpan versions and between its manuscript and Wanpan versions.

Key Word : *Jeokseonguijeon*, manuscript version, different version, representative different version, small paragraph, development pattern

이경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violalee22@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2월 9일 투고되어  
2017년 3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3월 10일 게재 확정됨.